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킬로나 Kelowna
파견대학	Okanagan College	기간	2017. 1. 22(일) ~ 2. 12(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오카나겐 컬리지의 위치는 주변에 경험하러 갈 곳들의 중심에 있는 듯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규모는 순천향대학교보다는 작았지만 꽤 컸고 건물들이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로 두 건물을 오가며 수업을 듣거나 도서관에 가서 발표준비를 했고 식당건물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친절해서 수업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할 때나 활동을 해야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한국인이 거의 없어서 영어대화를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갔는데도 학교 실내가 매우 따뜻했고 켈로나 날씨 자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춥지 않아서 생활하기 좋았습니다.
수업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시고 가끔 게스트가 와서 무언가를 소개하시거나 수업과 비슷한 시간을 잠깐 갖기도 합니다. 수업은 어렵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되고 게임을 하거나 캐나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거나 캐나다에서 자주 쓰이는 영어문장, 표현들을 배우고 연습해 보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써서 친구들에게 발표해 보는 시간도 가집니다. 같이 파견된 친구들과 영어로 프리토킹도 하고 원어민 선생님과 이야기해보며 선생님이 우리가 쓰는 영어문장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모르는 것은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교실 밖에 나가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며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갖고 수업 중에 주어지는 간단한 과제들을 1위로 해내거나 팀별로 수업 중에 다른 팀들보다 과제를 빨리 잘 해내면 선생님께 상을 받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캐나다, 켈로나의 음식들을 소개해 주시며 직접 가져오셔서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해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3주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서 마지막 주에는 각자가 원하는 주제를 선정해서 영어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수업이 끝날 때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실 때도 있었는데 전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제를 하며 홈스테이 식구들이나 학교의 학생들과 프리토킹을 할 기회가 생겨 좋기도 했습니다.

Activity	<p>다같이 스키나 스케이트를 타러 가고 시내투어를 하기도 합니다. 볼링과 컬링도 해보았고 하키게임도 보러 갑니다. 액티비티를 하러 나갈 때는 한국인 선생님 두 분과 같이 가는데 액티비티 중에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시고 안내를 해주시고 액티비티가 끝난 후에도 선생님들과 같이 푸틴과 같은 캐나다에서 유명한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같은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며 켈로나에 대해 더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준비물은 스키나 스케이트 탈 때, 컬링을 할 때 헬멧이나 스키복, 장갑 등 준비하기 쉬운 것들만 있었고 추가비용은 전혀 없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생각보다 춥지 않고 요번 겨울이 추운 겨울이었다는데도 한국보다 따뜻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트를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겨울이니까 따뜻한 패딩이 하나정도는 꼭 있어야 하긴 합니다. 그리고 눈이 자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천운동화나 그냥 운동화는 다 젖을 때가 많고 돌아다니면서 눈 녹은 물들을 밟으면 양말까지 다 젖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젖지 않는 신발이나 부츠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p>
안전	<p>그닥 위험하다고 생각한 상황은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켈로나 사람들은 한국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식당문도 닫고 가정집들도 10시 반이면 잡니다. 그래서 밤에는 밖에 사람도 차도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럼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한국에서보다 일찍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저 같은 경우는 최악의 홈스테이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홈스테이 가정이 안 좋은 것이 전혀 아니었고 정말 좋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3주 동안 있었던 홈스테이집의 호스트는 저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전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오해한 대로만 믿으며 화를 냈습니다. 그 후 제가 확실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쌀쌀하게 굴며 제가 마치 얹혀사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대하셨고 저는 호스트의 눈치를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하거나 아예 저녁을 굶은 적도 두어 번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호스트를 마주치는 것이 너무 힘들 정도여서 아침엔 새벽에 일찍, 저녁엔 호스트가 잘 만한 늦은 시간에 들어가고 싶었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사비가 더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런치를 싸주시는 것이 원칙인데 런치</p>

	메뉴가 점점 도가 지나치게 적거나 성의 없는 것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녁도 제가 외식을 한다고 연락드리지 않는 이상 제 몫도 차려주시는 것이 원칙이고 제가 원하면 제 몫을 남겨놓으시거나 호스트가족들이 저녁을 집에서 먹지 않을 때도 제 몫의 저녁은 해놓고 나가시는 것이 원칙인데 한 번은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도 말없이 가족들 전부 외식을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점심은 홈스테이집에서 싸주시는데 저는 먹어보고 싶어서 처음에 먹어보기도 했고 먹고 싶은 메뉴가 나온 날, 홈스테이집에서 싸준 음식이 적은 날은 학교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저녁은 홈스테이 집에서 해주시는데 외식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저는 위에 쓴 이유 때문에 외식을 자주 했습니다.
교통	주로 버스를 타고 통학하고 놀러다닙니다. 학교에서 액티비티를 하러 나갈 때는 다같이 학교버스를 이용하거나 일반버스를 같이 타고 가기도 합니다. 시내교통은 몇 번 버스를 이용해보다보면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점이 그닥 없습니다. 큰 정류장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교통비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버스이용 시 한국과 달리 정류장마다 안내글이나 방송이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transit앱이나 구글맵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700000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5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쇼핑		
버스비		3항목 합쳐서 700,000원
합계	2,20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자주 쓰일만한 영어표현이나 문장을 좀 더 공부하고 갔으면 더 많이 사용해보고 배울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신발을 그에 맞는 부츠나 방수인 신발을 가져갔으면 편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집 배정 정보가 저희의 경우 출국 이틀 전쯤에 나왔는데 좀 더 빨리 나오면 배정된 홈스테이집의 규칙이나 유의사항, 집의 위치, 필요한 것들에 대해 잘 알 수 있어 좋을 것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한국인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 영어를 많이 사용해볼 수 있었고, 저의 경우 일본인친구가 제가 머문 홈스테이집에 홈스테이를 하고있어서 그 친구와 영어로 대화할 시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또한 보통의 캐나다사람들은 친절했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3주동안 있는것이다보니 한국음식이 그리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해외여행 가서 한국음식을 찾는 편이 전혀 아닌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면이나 핫반, 김과 같은 음식들을 조금 챙겨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쓸 기회가 많다고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홈스테이가족과도, 현지인들과도 말을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해보고 배우려 간 것이니 최대한 영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여러 사람과 여러 대화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한국에서도 영어회화를 계속 공부해서 제 영어실력을 더 키우고 싶어졌습니다.